

撰稿人：朴恩彬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중국어 수업이 저를 대만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처음 대만에 도착했을 때 저의 중국어 실력은 你好, 謝謝, 이런 간단한 말만 할 줄 알고, 듣는 것도 잘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도 많이 없는 이 곳에서 저는 두려움을 가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러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동의 생활은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울창한 산, 가까이에 있는 바다 그리고 뽀뽀한 태양과 밤에는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에 기분이 힐링이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밤에 체육관 위쪽 마루에 앉아 손전등을 키고 위에는 형형색색의 물병을 올려놓고 음료와 과자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별을 구경하고 얘기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 덕분에 오토바이를 타고 바다도 가고, 산속에 있는 별장같은 카페도가고 하였습니다.

이 곳 화어중심의 수업은 중국어 기초부터 시작해 고급 중국어까지 수준별로 수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화어중심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본문 단어 설명해 주시고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매 단원마다 10번 이상 읽었는데 읽으면서 성조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 주시고, 다시 읽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정확한 듣기와 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경우 처음에는 각 문법마다 단어를 맞추는 식으로 문법을 익혔지만 중급반, 고급반으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문법을 직접 사용하고 생각하고 적어보면서 문법을 더 빠르게 익히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문화 체험할 수 있는 수업도 있어서 단오절, 추석, 청명절, 등 대만의 기념일에는 무엇을 하는지 또 직접 기념일과 관련된 음식이나 활동을 하면서 대만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중고급반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중국어 실력은 더 빨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진행을 했다면 중고급반은 본문에 있는 내용에 더해서 현재 자신의 국가와 본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현재 대만 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이 많아져 말하는 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현재 학과 수업에서 발표할 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저의 생각을 말하거나 내용을 직접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대학생활은 이 화어중심의 주임교수님과 조교선생님들, 또 학과 교수님들과 같은 중국어학과 친구들, 학교 교관님들, 학교 친구들 덕분에 중국어 실력도 빨리 늘게 되었고, 재미있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혹시 중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비염이나 기관지에 문제가 있어서 먼

지가 많은 곳에서는 생활하지 못하거나 바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 특히 다른 한국인이 많이 없으면서 중국어 실력을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께 이곳 타이동대학교(대동대학교)의 화어중심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